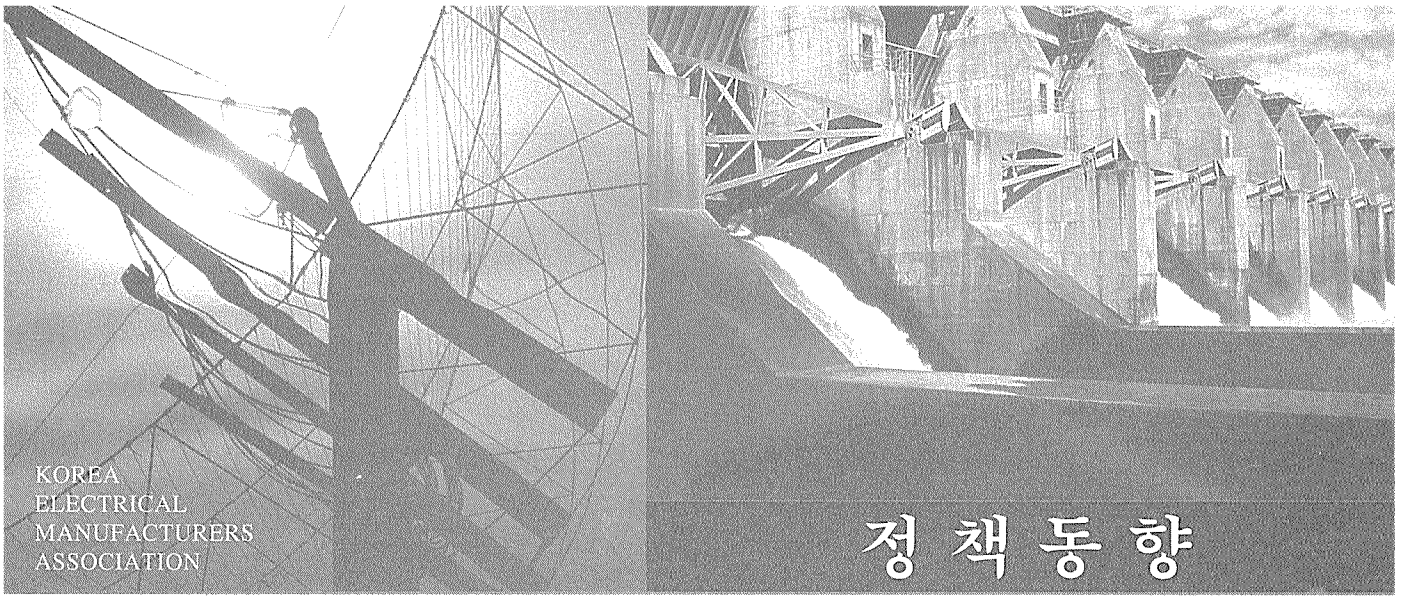

中企 기술지도 '3각 공조'

중소기업청이 생산현장에 뛰어든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현장에 대학교수 및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 등을 직업 파견해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는 '기술지도사업'을 지방중소기업청 및 생산기업연구원 등을 통해 지난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사업은 3개 기관에서 나누어 실시한다.

우선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생산현장 애로 기술지도' 사업을 15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기술지도 사업은 29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싱글 PPM품질혁신추진본부에서 주관하는 '싱글PPM 품질혁신 기술지도' 사업은 2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방중기청에서 실시하는 생산현장 애로 기술지도사업은 11개 지방중소기업청 및 지방사무소(대전 · 충남지역)를 통해 종업원 50인 이하의 소기업을 위주로 지역 내 대학교수 등 지도전문가를 현지 파견해 생산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애로기술을 단시일 내에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단기간의 지도로 지도수당의 70%를 구비 지원한다.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기술지도사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통해 기술혁신형중소기업 및 유망선진기술기업을 대상으로 14개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을 활용하여 신기술 · 신상품 개발 등 전문분야의 고도기술 과제를 연간 60일 이내로 지도하며, 지도과제당 소요비용의 6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싱글PPM 품질혁신 기술지도사업은 생산제품에 대한 불량률을 10PPM 미만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참여업체에 전문지도 위원을 파견하여 연간 10일 내외로 지도하며 지도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중기청 기술지도 희망 중소기업은 연중 수시로 각 사업 주관기관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이전기술 개발사업 시행

무담보 · 무이자 지원, 2월 4일부터 접수

우수기술 이전과 거래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이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국내외 대학 ·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우수기술의 이전을 받아 이를 실용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무담보 · 무이자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이전 기술개발사업' 의 올해 1차 사업신청 · 접수를 2월 4일부터 10일간 받는다.

국내는 현재 연구개발기술의 상품화 · 사업화가 부진한 실정이다. 때문에 개발기술의 이전 · 상업화를 적극 지원해 연구개발사업의 실질적 성과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개발기술 사업화의 성공률은 산업자원부 조사결과 2000년 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허기술의 사업화 비중도 24%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은 우수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상용화를 촉진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도모하고, 기술거래시장의 형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총 59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원금액은 최고 1억원까지로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지원하며, 올해는 2 · 4 · 6월에 걸쳐 총 3회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이전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로서 약 100개 과제다.

올해에는 지원과제선정의 투명성 제고, 참여중소기업의 편의도모 등을 목적으로 지원제도의 일부를 개선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수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가 활성화됨으로써 기술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발전시키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효과를 고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中企 정책자금 '특화' 지원

총 2조5000억 … 우수 · 영세기업 대출방식 다양화,

중기청, 구조개선 등 11개부문 신청서 접수

중소기업청은 최근 올 한해동안 중소기업에 대해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6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1월 7일부터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해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되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융자)자금의 전체규모는 구조개선 자금 1조원, 경영안정자

금 2000억원, 중소 · 벤처 창업자금 2700억원, 지식기반서비스업 700억원을 포함하여 총 11개 자금 2조5405억원으로 지난해 예산규모 2조2583억원보다 다소 증가했다.
올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은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시설자금 지원은 확대하고, 순수운전자금 성격의 자금지원은 축소하되 개발기술사업화나 수출지원을 위한 정책우선분야의 정책자금은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기청은 사업성 · 기술성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담보력 및 신용 있는 중소기업은 금융권자금 활용을 유도하고 정책자금은 담보력 없는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특화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자금 대출금리는 시중은행의 중기대출 금리와 연동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기업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5.9%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대출방법도 출자전환부 대출 등 다양한 융자지원 방식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판매업체도 고효율 전동기 장려금 지급

고효율 전동기를 설치할 때 지원되고 있는 정부자금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고효율 전동기를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장려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23일 에너지관리공단이 밝힌 '2003년도 고효율전동기장려금지원사업 추진계획(안)' 에 따르면 절전용량 1kW당 16만7000원씩 지원되고 있는 고효율 전동기의 설치장려금은 3만1000원 오른 19만8000원/kW 정도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또 대리점 등 관련 판매업체에도 절전용량 1kW당 4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내용의 설계장려금 예산이 새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이처럼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나선 이유는 그동안 부진했던 고효율 전동기 보급실적을 대폭 늘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에너지관리공단은 산업자원부와 제조 · 판매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고효율 전동기 확대보급지원단' 을 조만간 구성, 해당 기기 보급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같은 계획을 산자부에 보고하고 승인절차를 밟은 뒤 내달경 설치지원금 수준을 공식 발표키로 했다.
에너지관리공단 수요관리처의 한 관계자는 "산업자원부의 승인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장려금 수준은 약간 변할 수도 있겠지만, 고효율 전동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정부 방침엔 변함이 없다" 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은 23일 효성, 현대중공업, LG오티스 등 6개 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03년 전동기 장려금지원사업 제조회사 및 세트메이커 간담회' 를 열고 이런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